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님?

사람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땅에 깔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길에도 깔았습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분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환영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던 바로 그 손으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였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악을 쓰며 소리쳐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 그들이 원하던 임금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럴 생각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여야 한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세적으로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현세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세적 편안함만을 주고자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기만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신의 영광, 부귀영화를 추구하고자 하신 분은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수난을 회피하고자 하지도 않으셨고, 십자가 상 죽음조차도 거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난을 통해서,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기 도미니코 신부 | 교포사목(독일 베를린)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50,4-7

화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 서

필리 2,6-11

복 음

마태 26,14-27,66 또는 27,11-54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1

황강과 피난 교우촌(3)

황강은 합천군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을 지나 합천읍에 닿으면서 흐름이 느려진다. 그러면서 넓은 강폭을 따라 희고 고운 모래밭을 만들었다. 황강 백사장이다. 지금은 독을 만들어 강물이 넘쳐나지 않지만 1880년대엔 강둑이 없었다. 그러니 황강 언저리엔 노는 땅이 많았다. 평소엔 좋은 땅으로 무엇이든 가꿀 수 있지만 큰물이 들이치면 잠기는 땅이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홍수 때면 모든 것이 휩쓸려 가는 고약한 땅이었다.

피난 교우들은 이런 땅을 붙잡고 살았다. 처음엔 몰라서 그랬고 나중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 차츰 내륙으로 옮겨갔고 자연스레 한 지역으로 모여들었다. 1880년대 기록에 등장하는 합천지역 공소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황개공소, 늘밭공소, 고무정공소 역시 이렇게 해서 교우들이 모여든 공소다.

늘밭공소 기록은 1888년 로베르(金保祿) 신부 교세통계표에 처음 등장한다. 어른 영세자 13명을 보고하고 있다. 그때의 상황으로 놀라운 기록이다. 그만큼 교우들 활동이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합천지역은 1885년 경상도 첫 본당으로 출발한 대구본당에 속해 있었고 로베르 신부는 본당 주임 사제였다.

한편 1887년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전염병이 돌자 모두들 두려웠을 것이다. 선교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늘밭공소는 뿌리를 내린다. 지역 주민들을 대거 입교시킨 것이다. 훗날 피난 교우들만 남아있던 공소는 대부분 힘이 부치고 그들이 떠나자 와해된다. 대병면에 있던 황개공소는 그렇게 해서 맥을 잇지 못하고 사라졌다.

늘밭공소는 입교한 지역 사람들이 많았기에 최근까지도 활발했다. 산업화로 이농현상이 심화되던 1970년대 중반까지 합천본당 소속 공소로 큰 발자국을 남겼다. 늘밭공소는 삼가면 어전리於田里에 있었다. 늘밭이란 '널리있는 밭'이란 의미다. 이 지역엔 밭들이 널리있기에 늘밭 동네라 불렀는데 로베르 신부는 늘밭으로 기록했다. 1914년 일본인들이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면서 늘밭을 어전於田이라 한자표기 했다.

고무정공소는 1893년 조쥬(Jozeau 趙得夏) 신부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신자 수 36명으로 큰 공소였음을 알 수 있다. 1890년 부산본당이 신설되자 합천지역은 대구본당에서 부산본당으로 이관되었고 조쥬 신부는 초대 본당 주임이었다. 그는 1892년부터 서부경남 전역과 거제도까지 방문했고 알려진 공소는 대부분 찾아갔다. 대단한 열정이었다.

고무정공소는 합천 지역 동남쪽 산지인 쌍백면雙栢面 평지리平地里에 있었다. 조쥬 신부의 방문이 있기 이전부터 이곳에 교우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곳까지 교우들이 들어와 살았을까? 피난 교우들이 모여들었기에 가능했다. 황강을 따라 내려왔던 교우들과 경북 쪽에서 내려온 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면으로 교우가 된 지역주민들이 있었기에 고무정공소는 최근까지 존속했다.

고무정이란 말은 높은 새미(새) 즉 높은 우물高井이다. 지대가 높은 곳에 동네 우물이 있었기에 새미마을(고무정마을)이라 불렀다. 조쥬 신부는 이곳의 어떤 교우 집에 교우들을 모이게 했고 성사를 집전한 뒤 고무정공소로 보고했던 것이다. 평지리에 모이던 교우들은 훗날 면사무소가 있는 평구리平邱里로 공소 건물을 지어 이전한다. 현재의 쌍백공소다. 합천본당 이전에는 문산본당에 속했고 그 이전에는 마산포(완월)본당에 속했다.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공소다.

배움 속 행복한 만남: 신학

변종원 요셉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첫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전문학자나, 사목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교회에 대해 더 넓게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배움입니다. 이번에는 평신도로서 신학을 공부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체험한 삶 혹은 신앙생활의 변화나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사실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하진 못했습니다. 활력 없는 신앙생활 때문인지 제 삶 역시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는 단조로움을 종종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성경공부에서 그동안 신문 읽는 수준을 넘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는 데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체험은 저로 하여금 교구 신양대학에 입학할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결심은 하였지만 저 자신도 신학을 공부해서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일이 생기리라 큰 기대는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내 인생과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신학을 배우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양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제 신앙은 그저 체험 중이거나, 그 체험을 기억할 때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영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기억이 사라지면 다시 믿음을 다질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신학은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요, 내 삶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과 생활 일선에서 활동하는 몸으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수업을 듣고 이해하기만 해도 됐던 지금까지의 공부와는 신학은 그 결이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하나하나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가 얼마나 나의 삶과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는지,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교회에 대해 아쉽게 여겼던 점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일깨우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던 신학자들의 글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가슴 떨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성경 해석의 전통과 최근 경향, 가톨릭교회와 기도의 전통, 다양한 철학의 방법론적 연구와 신학의 여러 분야들, 전례典禮와 성사聖事에 관한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통하여 저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으며,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성령의 이끄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통하여 저는 신학을 배운 것을 많은 이들과 그 사랑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초대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과 애덕愛德 실천의 참된 자세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주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와 은총을 제대로 깨달아 제 삶의 자리를 복음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도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되돌려줄 일이 있다면 그리고 어딘가 나눔을 바라는 곳이 있다면 건강이 허락되는 한 기쁘게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몫’을 주시려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사는 내 인생은, 한마디로 행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신학’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교회에 대해 더 넓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 생각과 말 그리고 가치들을 하느님께 향하게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渴望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장場이며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을 알아가는 신학의 여정旅程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루카 11,1)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학교도 탄생했다. 기도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 성령이시다. 그리고 기도학교의 첫 교사는 우리 공동체를 창설한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신부였다. 기도는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전해지고 나누어져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 열정은 뜨거웠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어느 장소이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었다. 특별히 곤경과 어려움 속에 놓인 가난한 이웃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알도록,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에 기도를 동반하도록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모든 선교지에도 기도학교는 생겨났고 우리는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이 미미하지만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 공동체 역시 매달 세 차례의 기도학교를 열고 있다.(첫 주일: 2.30대, 셋째 주 토요일: 4.50대, 둘째 주일: 평신도 기도학교)

그런데 3년 전,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모든 미사가 멈추어지고, 대면이 허락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기도학교가 잠시 위기를 맞았다. 기도학교를 닫을 수밖에 없는가? 고민이 깊어질 무렵, 성령께서는 새로운 시도로 우리를 이끄셨다. 비대면 모임과 함께 SNS상예, 주로 카카오톡과 밴드로 우리를 매일 밤 모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며 위기의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결속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기도는 곧 사랑이라고, 기도의 열매는 삶에 맺어진다는 것을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배워가고 있다. 기도학교에 오는 청년들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오늘날 그들 현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가 삶과 연결되도록 작은 실천들을 해 오고 있음을 보면 마음 뿌듯하다. 한 청년은 자신의 첫 월급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큰 몫을 떼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선교지인 케냐의 난민 캠프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을 때 몹시 기뻐했다. 또 몇몇 청년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주는 공부방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용기와 지지를 보내며 그들의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이웃에 사시는 연고가 없으신 할아버지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고 있다. 형편이 어렵고,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할아버지를 위해 발품을 팔아 요양병원을 찾아 모셔다드리고, 그분이 머무시던 집을 몇 날 며칠 혼자서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 매주 그분이 좋아하실 간식을 준비해서 방문하고 있다. 기도학교에 모여드는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공동체가 되어가려고 우리는 기도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안드레아 신부는 말한다.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효능을 저울질할 수는 결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성장한다면, 악을 끊어버림에 성장한다면, 하느님의 뜻에 충실함에 성장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효력임을 느낍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과 피조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기도들을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위에 봉헌할 것이다. 그리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사도 2) 기쁜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엄마

여운숙 마리아 시인/ 가톨릭문인회

죽은 듯이 보이던 나뭇가지에서 생명을 알리는 소리가 보이고, 연분홍 진달래가 숲을 이루는 터널을 지나 정상에 오르니 봄바다의 출렁거림이 보여요. 엄마와 함께 올랐던 날들. 팝콘처럼 황홀한 벚꽃 무리를 따라가다 보니 바람의 온도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계절 앞에서 청푸른 바다는 젊음이 마음 같고, 갓 태어나는 아기 눈망울처럼 어찌 이리 예쁠까요.

엄마!

어느새 엄마가 저의 곁을 떠난 지도 17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엄마가 앉으셨던 성당의 그 자리가 선연하고, 성가며 연도 바치던 목소리가 곁에 들려온답니다. 엄마의 깨끗하고 냉철한 성향을 닮아서 자칫 냉정하고 각진 인간 같으나, 수리에 정확하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심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드러움과 감성적인 성향이 엄마에겐 몹시 애타게 했으며 답답하기까지 하셨을 법.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도 그렇게 닮았더라구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절. 가정 형편에서도 교육열을 놓지 않으시고 딸이라고 배움을 끊지 않으셨던 단호함이 오늘날 소박하게 제 앞길을 열어가는 데 조그만 이력이 된다는 것. 신앙을 신앙이라 가르치지 않으시고 성당 옆 작은 구멍가게를 할 땐 성당에 미사가 있든 없든 늘상 그곳에서 친구들과 지냈던 추억은 오랜 보석이어서 가끔씩 마음속 진주를 캔답니다. 8·15광복절날 학교엔 안 가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갔던 일은 지금도 눈에 선하고 학교에선 여름 방학 때의 집합이 결석으로 처리되었던 시간들.

엄마의 부지런함과 경제활동이 무척이나 저를 외롭게 했었기에, 학교를 다녀오면 텅 빈 공간이 싫어서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도 했답니다.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한다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냈더니 미숫가루를 강원도에서 거제도까지 보내주시면서 동봉한 편지의 글. 그때 엄마의 필체를 지금도 기억하고 저의 작은방 창고 편지함에 숨 쉬고 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파란 볼펜의 흘날림이 조금은 번져 있고, 모서리는 낡아 있어도 말이죠. 사실은 엄마가 몸소 보여주고 물려주신 종교, 신앙의 힘이 애기 손톱만큼 저에게도 짙이 내리고 자라고 있었음에 무척 감사함을 느껴요.

사회 결혼을 하기 전에 관면혼은 꼭 해야 한다며 이끌어 주셨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고, 그래서 작년 11월 저도 엄마처럼 그렇게 딸아이에게 권하고 행하였기에, 한 가정 내에서 엄마의 역할이란 참으로 크고 신비롭다는 생각이었어요.

엄마의 나이가 되었어도 엄마를 알지 못하고, 그때의 엄마는 참 어리고, 젊고, 활력에 찬 모습이었음을... 엄마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슬프게, 가장 빛나게, 가장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참 고마운 엄마를 존경하며 악착같이 살아내신 삶이 여자의 일생 중 가장 멋진 '시'라는 것을 오 늘은 어찌다가 삶의 한 모퉁이에서 엄마를 그려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 교구/본당

성직자 모지 성모

일시: 4월 3일(월)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예비신학교·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4월 9일(주일) 13: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월간 지금 '우리동네 공공이' 참여자 모집

일정: 4월 7일(금)까지 모집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주민강좌, 월간활동(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한 의제 발굴, 참여자들이 의논하여 직접 정함) 등

신청: 전화 또는 내방

문의: 070-8798-4807(사회참여지원팀 손경희)

▶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정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4일(금) 19:00

1부-공연, 2부-미사(19: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주최: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 기 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4월 9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일시: 4월 17일(월)~20일(목) 13:00~17:0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5층 파티마홀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교육비: 4만 원

문의: 055-270-1648, 1650

MBTI로 새롭게 만나는 우리 가족

일시: 1차-4월 15일(토), 2차-4월 29일(토)

10:00~13:00

장소: 젊음의 집/ 참가비: 1인 2만 원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부모와 자녀

문의: 젊음의 집 055-255-8295, 010-5558-3892

마음이 통하는 가족대화법

일정: 4월 18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10:30~12:00

장소: 젊음의 집/ 참가비: 10만 원(8회기)

대상: 모든 부모

문의: 055-255-8295, 010-5558-3892

성지에서 찾은 나만의 이야기

내용: 천주교 성지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

접수: 4월 3일(월)~5월 31일(수)까지

대상: 본당, 단체, 수도회,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문의: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 031-8019-5403 (<https://mocatholic.or.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설립 10주년 이벤트

내용: 수강료 할인(홈페이지 참조)

일반 2만 5천 원, 단과 1만 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피정

일시: 4월 21일(금)~23일(주일) 2박 3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김도마스 수녀 010-9353-1773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5월 13일(토)~14일(주일)

6월 10일(토)~11일(주일)

3박 4일- 4월 27일(목)~30일(주일)

5월 4일(목)~7일(주일)

8박 9일- 4월 13일(목)~21일(금)

6월 15일(목)~23일(금)

40일- 4월 11일(화)~5월 20일(토)

10월 4일(수)~11월 12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침'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5월 8일~10일/ 5월 13일~15일/ 5월 18일~20일/ 5월 22일~24일/ 5월 29일~31일/ 6월 10일~12일/ 6월 18일~20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제주자연피정(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5월 12일~14일/ 6월 3일~5일/ 7월 21일~23일

성지순례(추자도): 5월 6일~9일/ 5월 18일~21일/ 5월 27일~30일/ 6월 10일~13일/ 6월 17일~20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재속맨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새 청사에서 함께 일할 가사도우미(주방과 환경미화)를 모집합니다.

모집: 1명

접수: 4월 9일(주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통

특이사항: 신체 건강한 분,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구	4월 3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세미나-제2강 예수님을 통한 구원	강철현 미카엘 신부(월영본당 주임)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문의 바람	010-6608-3217	-

대성의전 경남장묘건설팀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은(클레멘스)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자도) 성지순례 모집 5.1(월)~4(목)/ 5.8(월)~10(수)/ 5.15(월)~18(목) 6.9(금)~11(주일)/ 6.13(화)~15(목)/ 6.20(화)~22(목)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4.21(금)~23(주일) 인천·의정부 3일(부산·대구 출발) 5.25(목)~28(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 마산 예경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요양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일본 홋카이도 순례 8월 16일 출발 3박 4일-209만원 ■나가사키 순례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3박 4일-125만원 ■이집트 완벽일주(성서학자 동행) 11월 1일 출발 14박 15일-650만원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ur.co.kr
--	--	--	--

하느님의 자비 주일(부활 제2주일)을 맞기 위한 9일 기도 안내

채동호 루도비코 신부(안의선교본당 주임)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 부활 후 첫 주일, 곧 부활 제2주일에 거행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원의대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 대禧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 자비의 사도인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는 자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함으로써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은 하느님의 자비 신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중요한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성금요일부터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까지 9일 동안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성금요일인 **4월 7일부터 4월 15일**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까지 9일 동안 아래와 같이 기도한다. 주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 나의 자비의 샘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먼저 발하고 나서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게 되는 것이다.



- **첫째 날**- “오늘은 모든 인류를, 특별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둘째 날**- “오늘은 내게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을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깊은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셋째 날**- “오늘은 열심히 충직한 영혼들을 모두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넷째 날**- “오늘은 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다섯째 날**- “오늘은 갈라진 형제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여섯째 날**- “오늘은 온순하고 겸손한 영혼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일곱째 날**- “오늘은 특별히 내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여덟째 날**- “오늘은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 **아홉째 날**- “오늘은 미지근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침)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잘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은총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란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은 세례성사 때와 같은 죄와 벌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비 성화를 공경하고 자비 주일 준비를 위한 9일 기도에 참여하여 이날 주님께서 하늘의 수문이 열리게 하시어 쏟아부으시는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도록 해야 하겠다.



기도책 29쪽~44쪽 참조 ▶

화요일의 특별한 만남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안녕하세요?”

10여 명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분들이 두 줄 지어 집회실에 들어오시며 그중 몇몇 분이 밝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라고 여러 해 동안 함께 봉사하고 계신 윤 글라라 씨와 저는 반가이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하다 보니 그분들이 언니, 동생 같기도 하고 조카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1주일에 1시간 주어지는 집회는 시작이 됩니다.

격주로 미사가 있는데, 그런 날이면 대부분이 신자분이 아니시기에 아직 익숙지 않은 미사 예절을 따라가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신부님께서 강론 말씀하실 때는 귀를 쫓긋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좋아 합니다. 미사가 없는 주에는 그분들의 원함에 따라 기타를 치면서 유행가를 불러보기도 하고, 성가를 배워보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성경 이야기를 풀이해 이야기기도 하고, 종이접기나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다소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곳 생활에서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시간의 느낌을 “집회 시간 동안은 소(교도소를 줄여서)에 있다는 생각을 잊게 돼요, 웃고 떠들고 하면서...”라고 표현합니다.

집회가 끝나면 개인 접견을 원하는 분들과 접견하는데 모두가 함께하는 집회 시간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터놓는 개인 만남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고단했던 여정,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들을 때면 마치 제가 고해소에 앉아 있는 듯 마음이 숙연해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희망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로 공부나, 자격증을 준비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몇 분은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한 분이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다고 하여도 수용된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해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소에서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한 영치금을 지원하거나, 가끔 진료를 위해 병원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정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도움은 소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보시라는 응원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출소자분들에게 선입견을 품고 대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은 이 생활을 한 사실을 평생 마음 줄이며 숨겨야 할 십자가로 안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어느 교도소를 방문하셨을 때 수용자분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계시고, 저는 다만 보이지 않는 죄를 지으며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